



연계전공운영의 실제*

김 근 | 서강대학교 중국문화전공 교수

I. 들어가는 말

포스트모던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사회는 다양한 지식과 참신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재를 기존의 교육 시스템으로 공급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간파한 서강대학교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고급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연계전공 제도를 고안하여 시행하여 왔다. 1999년부터 시범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연계전공은 영미문화, 프랑스문화, 중국문화, 정·경·철(정치·경제·철학), 여성학 등 5개 전공이다. 이 새로운 응용 교육제도는 그간 교육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써 타대학들과 교육행정기관 및 사회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과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발견되었다. 이 글은 연계전공의 운영 실태와 그간에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함과 아울러 이를 적극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함으로써 앞으로 연계전공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과 정보를 공유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II. 운영실태와 문제점

연계전공 제도 운영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연계전공의 정체성에 관한 인식이다. 지금은 학부제가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기존의 분과 체제라는 기본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면이 없지 않다. 그래서 연계전공이라는 개념을 기존 분과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든가, 심지어는 분과의 하위 전공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기존의 분과 체제 내에 설치한 교과목을 횡적으로 엮으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인데, 이런 개념 하의 연계전공 운영은 결코 사회적 수요에 미치는 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 물론 연계전공의 학제적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분과 학문의 물리적인 압축으로 연계전공이 형성되

* 이 글은 서강대학교 '연계전공운영개선연구'에 참여한 공동연구원들이 작성한 기초 자료를 토대로 씌어졌다. 공동연구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상기(영미문화 전공 교수), 박정섭(프랑스문화 전공 교수), 김근(중국문화 전공 교수), 강정인(정·경·철 전공 교수), 조옥라(여성학 전공 교수).

“

서강대학교에서 1999년부터 시범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연계전공은
영미문화, 프랑스문화, 중국문화, 정·경·철(정치·경제·철학), 여성학 등 5개 전공이다.
이 새로운 응용 교육제도는 그간 교육수요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음으로써 타대학들과 교육 행정기관 및 사회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갖게 하였다.

”

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행하고 있는 5개 부문의 연계전공은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진 전공 연구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따라서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모색해 가면서 효과적인 지식체계를 확립해 가는 일이 시급하다 하겠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본교의 연계전공은 영미문화, 프랑스문화, 중국문화, 여성학, 정치·경제·철학 등 모두 5개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전공은 궁극적으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운영돼 왔으므로 문제점도 각기 다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상세한 내용은 전공별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1. 영미문화 전공의 경우

영미문화 전공은 설립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교수들이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영미문화를 이해하는 데 영어의 습득이 기본이기 때문에 모든 문화과목을 영어강의(영어)로 진행해왔다. 또한 연계전공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관련 있는 인문학, 사회과학과 적극적으로 연계되도록 힘썼다. 그리고 문화 연계전공 핵심과목을 실생활 중심의 기초과목과 이를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는 이론과목으로 적절히 배합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미문화 전공은 아직도 다음과 같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학문적 이해의 부족과 행정 지원의 불균형 문제이다. 연계전공이란 학부제 시행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연계전공이라고 해서 기존의 전공(구 학과)과 차별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학부제 하에서의 전공이 유연성을 가져야 전공간의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기득권으로 인하여 연계전공은 공간 사용, 행정 및 재정 지원 등에서 현저한 차별을 겪고 있다. 연계전공은 그 특성상 팀티칭, 문화 체험 등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분과체제를 하루 속히 버리고 학부제를 확실하게 정착시켜야 전공 교수들 간의 교류가 용이해져서 연계전공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인력의 부족 문제이다. 대학 당국은 연계전공을 운영함에 있어서 전담교수의 채용을 가급적 피하고 기존의 교수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그러나 관습상 분과 체제 하에 있는 영미어문을 먼저 가르쳐야 하므로 문화 강의에 시간을 배당할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설 과목의 대부

분을 강사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영미문화 전공을 가르칠 수 있는 전공교수를 채용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적절한 교수를 초빙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내외를 막론하고 그간의 교수요원들은 대부분 분과 체제 하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

셋째, 교과목 운영의 불균형성 문제이다.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학부제를 채택함으로써 전공 이수학점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 전공을 폭넓게 섭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한 제도였는데, 오히려 인기전공이나 인기 과목에 편중되는 결과를 빚어냈다.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전공과목만을 선택하고 나머지는 손쉬운 과목들로만 학점을 채움으로써 쉽게 졸업하려는 잘못된 풍조가 적지 않게 유행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연계 전공 관련 과목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력있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의지는 자연히 좌절될 수밖에 없다.

2. 프랑스문화 전공의 경우

앞의 영미문화 전공이 영미어문과 별도로 개설된 데 비하여 프랑스문화 전공은 전신인 프랑스어 문학과에서 외연을 확대하여 프랑스문화 연계전공으로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운영해온 프랑스문화 연계전공은 교육과정 운영상의 어려움과 전공자 확보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현실적 과제에 부딪쳐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기실 같이 맞물려 있으니, 전공자가 없다면 교과과정의 개발 자체가 자칫 무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째, 교과과정 운영상의 어려움이다. 프랑스문화 연계전공을 표방하고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였으나 수강생들은 프랑스어 학습 관련 과목이나 대중문화 관련 과목에만 편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

다. 그러므로 기타 연계과목들이 개설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계과목의 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체제 하에서는 프랑스문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체계적인 전문 지식을 습득하였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둘째, 전공자 확보 및 전공 정체성의 문제이다. 국제문화 계열의 전공은 시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므로, 프랑스문화 연계전공에 지원하는 학생의 수가 현실적으로 많이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연계과목의 개발에만 의존하여 전공자를 확보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프랑스문화 연계전공이 정체성을 확보하기가 힘들 것이고, 더 나아가면 대학원 과정(불어불문학)과의 학문적 연계까지 어려워진다.

3. 중국문화 전공의 경우

영미문화 전공과 프랑스문화 전공이 연계의 주체, 또는 전공이 전신이 있었던 데 비하여 중국문화 전공은 특별한 전신이 없이 중국어문, 중국사학, 중국철학, 종교학 등 인문학 위주의 교수진을 연계하여 새로이 개설한 것이 특징이다.

전공 개설 이후 드러난 문제는 대략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영미문화 전공의 경우에서 이미 지적한 바 있지만, 중국문화 전공의 경우도 문화 전공자를 교수로 확보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다. 문화연구라는 분야가 유럽에서 맹아된 최근의 학문 조류이어서 중국학에서는 아직 학문분야로 인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의 개설과 개발에 근본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문, 역사, 철학, 종교 등의 인문학을 물리적으로 압축해서 개설하고 가르친다면 당초 의도한 학제적 전공으로서의 문화학이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빚

어진다.

둘째, 대학의 체제가 제도는 학부제인데 운영은 분과 체제의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련 교수들이 학과 전공과목 교육을 우선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학제과목 개발에 관심을 가질 여력이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 문화연구의 정체성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데서 오는 인식 부족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본교에서는 중국문화 전공이 새로이 설치된 연계전공이므로 대학원 과정이 개설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심화된 전공 연구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학문적 연계성을 제공하기 어렵다. 더구나 문화연구를 대학원 과정에 개설한 대학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연구 의욕은 학부 졸업 즉시 좌절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4. 정·경·철(정치학·경제학·철학) 전공의 경우

정·경·철 연계전공 역시 철학, 경제학, 정치외교학 등의 관련 교수진을 중심으로 신설, 운영되어 왔고, 정치외교학 전공 주임교수가 관행으로 연계전공 주임교수를 겸직해 왔다. 1999년 개설된 당시에는 비교적 호응이 좋았었지만 1년 후부터 학생수가 급감하더니, 2003년 1학기 현재에 이르러서는 제2, 제3 전공을 합하여 총 32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경·철 전공은 그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중 중요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정·경·철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저조한 것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무엇보다 타 연계전공은 나름대로 지속될 수 있는 인적·제도적 토대를 갖추고 있는데 비하여 본전공은 그렇

지 못하다는 데에서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문적 정체성을 확립하기가 쉽지 않았고, 이는 다시 학생들의 전공으로서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연계전공이라는 개념이 정체성을 가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이겠지만 정·경·철 전공의 경우는 타연계전공에 비하여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경·철 전공에 대한 인식부족은 사회적 관심이나 수요를 창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학생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상황은 정·경·철 전공이 정체성 있는 과목을 독자적으로 개설하지 못하고, 정치외교학, 경제학, 철학 분야에서 일정한 기초과목을 필수로 수강하고 난 다음, 나머지 학점을 세 전공의 전공과목을 일정하게 수강하면 전공이 성립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5. 여성학 연계전공의 경우

여성학 전공은 여성학 연계전공 위원회의 주도로 매학기 5~7개 과목을 개설하여 300~5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한 사회학 전공, 신문방송학 전공 등 타전공과의 통합과목을 개발해왔으며, 성별 감수성 훈련, 미디어 기자재를 활용한 여성문제 인식 향상 등 새로운 과목 운영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 중이다.

교과목 개설과 운영은 전체적으로 보면 무리없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질 높은 강의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공 강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것이 강의에 반영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학은 학생들의 참여가 학문의 핵심이므로 여성학 과목에 함께 토론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더 확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중심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Ⅲ. 운영 개선의 방향

앞에서 우리는 연계전공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우리가 연계전공이라는 새로운 전공 영역을 확대, 정착시켜 감에 있어서 풀어야 할 과제나 개선점은 이미 노정된 문제점들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1. 제도 정비와 행정적 지원의 확충

무엇보다 먼저 기존의 분과 체제의 관습에서 탈피하여 학부제를 정착시키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대학의 행정부서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행정 체계는 분과 체제 지원에 적합토록 설계된 체제이므로 학부제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정비와 지원 체계가 절실히 요구된다. 즉 연계전공은 그 특성상 팀 티칭과 교과목 개발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수업 책임시수의 유연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2. 학문적 이해의 제고

연계전공은 학제적 연구를 기초로 한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절실하다. 연계전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이에 대한 오해가 빚어낸 주위의 방어적 태세가 주범이다. 즉 연계전공이 기존의 분과학문의 존재를 위협한다는 오해인데, 기실 연계전공

은 분과학문이 추구하는 전문성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전문성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두 분야는 상호보완적 관계이지 결코 적대적 관계가 아니다. 이런 취지가 교수, 학생,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주지돼야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가 다양하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연계전공이 각 분과학문의 하위 전공이 아니라 동등한 전공임을 인정하고 이들을 기존의 타전공과 균등히 대우해야 한다.

3. 상호 연계를 통한 교육인력의 확충

현재 분과 체제 하에서의 각 전공 교수는 그 전문성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전공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전공 전문가는 많으나 이들을 연계할 인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러므로 연계전공은 각 전공 교수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9세기부터 텐느, 부룩하르트, 아놀드 등이 모여서 종합 학문으로서 문화 연구를 시도한 사건이라든가, 20세기 초 독일에서 여러 전공자들이 모여 프랑크푸르트 학파를 이루고 문화산업과 나치즘을 연구한 사례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교육 체계성의 강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연계전공은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 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학부제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교육의 체계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전공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을 철저히 조사,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연계시킴으로써 학생들이 힘들이지 않고 연계전공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설

계해야 한다. 이를테면 신문방송학 전공의 '대중문화론'을 영미문화 연계전공의 '대중문화 연구'의 대체과목으로 수강편람 상에 함께 병기해주면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전공 교수들 사이의 상호 이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5. 대학원 협동과정의 신설

앞서 지적했듯이 학문의 전문성과 정체성은 대학원 교육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계전공의 체계성은 대학원 과정에서 심화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 심화된 연구와 전문 인재가 나와야 그 학문의 경쟁력과 적응력을 대사회적으로 홍보하고 주지시킬 수 있다. 협동과정이 경쟁력을 가질 때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학문도 활성화될 수 있다. 데카르트가 수학을 기초로 근대적 자아를 설명하였고 뒤르케임이 물리를 이용하여 도시화 현상을 설명한 사실은 바로 이 점을 시사한다.

IV. 맺는 말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연계전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대학의 교육체제와 관습은 이러한 변화의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문은 근본적으로 보수적이고, 이러한 보수성이 곧 학문을 학문답게 만들고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순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변화를 강요

당하는 기업과 달리 대학은 굳이 적극적으로 변화를 하지 않아도 낙후는 필지언정 도태는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는 존재자의 시대이다. 즉 존재자가 존재를 결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학문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식되거나 쓰여지지 않으면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없어지거나 잊혀진다. 이것을 학문은 경계해야 한다. 특히 그것이 기초학문일 때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문의 존재자를 찾고 개발하여 밖으로 드러내야 하는데, 그 유용한 방도 중의 하나가 연계전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연계전공의 활성화란 궁극적으로 기초학문의 적극적인 육성 방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 당국과 교수들은 분과 학문들이 그간에 이룩한 성과들을 어떻게 엮어서 사회적 수요에 맞는 연계전공 형태로 발전시킬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날 대학이 변화에 적응하여 다시 경쟁력을 갖는 첩경이 될 것이다. 대학교육

김근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였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계명대학교 및 한양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서강대학교 중국문화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한자는 중국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육망하는 천자문』, 『소강과 중국의 시장 경제 윤리』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이 있다.